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개별자론*

백도형

주제분류 심리철학, 형이상학, 과학철학

주요어 심신 유명론, 4차원개별자론, 데이비슨, 술어화불가능성, 정신 인과

요약문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한동안 심신 문제에 관한 주류 입장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심리철학에서 이러한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심각한 존재론적 문제가 제기되어 정신 인과 문제가 새삼스럽게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재권 등에 의해 제기된 비판에 의하면 속성 2원론으로서의 비환원적 물리주의에서 정신적인 것은 아무런 인과적 힘도 갖지 않기 때문에 단지 부수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정신적인 것은 어떠한 의미있는 존재론적 지위도 갖지 못하며 물리적인 것에 기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비판이 옳다면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잘 알려진 장점은 허구에 불과하고 심신 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모습이 된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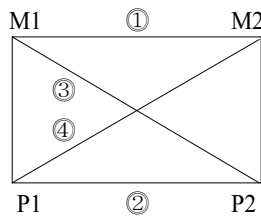
나는 정신 인과 문제는 형이상학의 유서깊은 주제인 보편자 문제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널드 데이비슨 식의 개별자-사건 동일론이 심신 유명론의 형태로서 심신 문제에 관한 유망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 논문에서 데이비슨의 개별자-사건 동일론과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을 응용하여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개별자론을 제시한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숭실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머리말 : 정신 인과와 유명론

심신 문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신 인과(mental causation)의 문제는 자연계의 인과에 어떻게 정신적인 것이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최근 심리철학의 주류 입장은 물리주의이며, 그에 따라 대체로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the causal closure of the physical domain) 원칙을 받아들인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시각에 어떤 원인을 갖는 어떠한 물리 사건도 물리적 원인을 갖는 것이고, 원인과 결과의 양 방향으로 인과관계를 계속 연장해 가도 물리 영역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원칙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물리적 존재자라는 물리주의의 기본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물리주의를 전제로 할 때 정신 인과의 위상이 위태로워진다.

정신 인과란 인과의 양 향인 원인이나 결과에 정신적인 것이 개입하는 인과를 말한다. 예컨대 아래 그림에서 M1, M2가 정신 속성이며 P1, P2를 물리 속성이라고 한다면, P1과 P2의 두 물리 속성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②만이 물리 인과이며 나머지 ①, ③, ④는 정신 인과이다. 특히 ①은 정신적인 것들 간의 인과 관계가 된다. 정신 인과의 문제는 물리주의와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을 받아들일 때 물리 인과 이외의 정신 인과가 성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정신 인과의 문제는 대체로 최근에는 비교적 온건한 물리주의로서 물리주의와 이원론의 직관을 조화시킨다고 평가받는 비환원적 물리주의 내지 속성 2원론의 입장을 비판하거나 방어하는 식으로 쟁점화 되고 있다.



정신 인과 문제가 심리철학계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데에는 김재권의 배제논변(exclusion argument)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그의 논문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에 따르면 물리주의를 받아들이는 한 ②만이 진정한 인과관계이며 거기에서 원인인 P1만이 결과를 야기하는 충분조건이 되어서 ①, ③ 등에서 정신적인 원인 속성 M1의 위상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한 가지 가능성은 M1이 인과적 힘을 갖지 않는 부수 현상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 M1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 제거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김재권의 이런 비판은 도널드 데이비슨의 무법칙적 1원론(anomalous monism)을 겨냥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불만을 품고 M1의 실재성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이번에는 M1, P1이 부분적 원인이 되어서 두 원인이 합해야 충분한 원인이 되거나, 두 원인이 각각 충분한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과잉결정(overdetermine)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은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두 원인이 동일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심신 동일론 내지 심신 환원주의를 옹호하거나,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 자체를 부정하고 두 원인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물리주의를 버리고 데카르트식 2원론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비환원적 물리주의 입장을 유지한 채로는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며 어차피 심신 환원주의나 데카르트식 2원론 역시 잘 알려진 여러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때¹⁾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물리주의를 받아들이는 한 정신 인과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신 인과와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한 최근 김재권의 영향력있는 비판이다.

1) 심리철학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데카르트식 실체 2원론에 대해서는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자로서의 심신 두 실체를 인정하는 입장과 심신 간의 인과적 상호작용을 인정하는 입장 사이에 보여지는 상충이 유력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며, 심신 환원주의에 대해서는 복수실현가능성 논변이 유력한 비판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김재권은 기능적 환원주의로 환원주의 부활을 시도하였다. Kim, Jaegwon (1998) 참조. 이에 대한 나의 비판은 줄고(2000A) 참조.

나는 지금까지의 여러 논문들에서 정신 인과와 보편자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논하면서, 데이비슨의 사건 이론을 유명론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을 옹호하면서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김재권의 배제논변 등 비판이 적용될 수 있지만, 내가 해석하는 데이비슨처럼 유명론의 입장을 취한다면 정신 인과를 잘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 하지만 데이비슨 자신은 자신의 유명론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부각시킨 적이 없다. 이 글에서는 그런 뜻에서 데이비슨의 사건 이론과 심신 이론의 유명론적 성격을 강하게 부각·발전시켜서 4차원개별자론(four-dimensional particularism)이라는 대안 형이상학과 그것을 심신 문제에 적용시킨 심신 유명론(psychophysical nominalism)의 입장을 구성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단지 심신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기존 형이상학의 문제들을 반성해 보는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데이비슨의 사건 이론과 4차원개별자론

데이비슨의 존재론은 사건을 기본 존재자로 두는 사건 존재론이다. 그의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자(concrete particulars, tokens)이고, 시공간 내에서 자기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반복되지 않고 1회적인 개별자이다.³⁾ 그는 사건과 사건의 서술(description)을 구별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의 존재론에서 기본 존재자인 사건을 존재차원으로 본다면 사건 서술은 언어차원이라 볼 수 있다. 그와 흔히 대조되는 김재권의 사건 개념과 비교해 볼 때 그의 사건은 철저한 개별자 사건이며 그런 뜻에서 김재권의 사건이 보편자 실재론을 전제하고 있다면⁴⁾ 그의 사건은 유명론적인 사건이

2) 특히 졸고(1995A) 참조.

3) Davidson(1970), 209쪽.

4) 김재권은 사건을 <어떤 개체가 어떤 시각에 어떤 속성을 예시화함(exemplifying)>으로 본다. 즉 그의 사건 개념은 개체(object, substance), 속성, 시간의 3가지 요소로 되어 있으며, 개체 그리고 시간과 함께 속성은 중요한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라고 할 수 있다.⁵⁾ 앞에서 보았듯이 반복되지 않고 1회적인 개별자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데이비슨의 사건 서술은 보편자를 내재하고 있지 않은 1회적인 독특한 사건을 술어에 의해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유일하게 참인 서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⁶⁾ 서술 주체가 가진 관점에 따라 여러 서술이 있을 수 있다. 데이비슨의 경우 어떤 사건이 물리 사건이나 정신 사건이나 하는 것은 김재권의 경우처럼 그 사건이 물리 속성을 갖느냐 정신 속성을 갖느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물리 술어에 의해 서술되면 물리 사건이 되고 정신 술어에 의해 서술되면 정신 사건이 된다. 즉 그에 따르면 “정신적인 것은 존재론적 범주가 아닌 개념적 범주일 뿐”⁷⁾이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건은 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물리주의자이다.⁸⁾ 그러므로 데이비슨의 정신 사건은 물리 사건이지만 정신 술어에 의해 서술된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데이비슨의 사건 개념을 바탕으로 한 그의 심신 이론이 정신인과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다.⁹⁾ 그의 심신 이론인 무법칙적 1원론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이지만 다른 철학자들의 비환원적 물리주의처럼 보편자 실재론을 토대로 한 속성 2원론이 아니고 유명론이므로 김재권의 배제 논변과 같은 부수현상론 시비에 빠지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김재권의 논문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에서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비판은 그것의 정신 속성이 부수현상에 불과하거나, 또는 속성 2원론의 정신 인과가 과잉결정 등 존재론적 부조리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비슨의 유명론에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술어에 의

있다. 김영정은 이러한 김재권의 사건 이론을 ‘속성예화사건론’이라는 잘 알려진 명칭과 함께 ‘구조적 구체자 사건론’이라고 칭하면서 데이비슨의 ‘비구조적 구체자 사건론’과 대조시켰다. Kim, Y. J.(1985), 1-4쪽.

5) 자세한 내용은 줄고(1995A), 2장 이하 참조.

6) 이에 관한 설명은 3장에서 술어화불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다루겠다.

7) Davidson(1987), 46쪽.

8) Davidson(1970), 214쪽.

9) 데이비슨의 사건론과 심신론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줄고(1988), (2012) 참조.

한 서술에 불과하므로 이상의 문제점들은 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그의 사건 개념에서 인과력을 갖는 것은 속성이 아닌 개별자 사건이므로 특별히 정신 속성이 부수현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¹⁰⁾ 과잉결정의 문제도 데이비슨의 경우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술어 간의 문제가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즉 데이비슨의 사건 개념에서는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정신 사건도 물리 사건도 될 수 있으므로 과잉결정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¹¹⁾

그런데 데이비슨의 입장이 유명론이라는 것은 간혹 거론되어 왔지만 그 스스로 유명론자임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었고, 그의 유명론이 거론된 경우도 그것과 정신 인과 문제를 관련지은 논의는 나의 작업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의 입장이 유명론임을 부각시키는 것은 심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석일 수 있다. 하여간 나는 데이비슨식의 유명론이 심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입장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의 입장을 더욱 확장·발전시켜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개별자론을 구상하였다. 이에 관해 좀 더 살펴보자.¹²⁾

데이비슨의 기본 존재자인 개별자 사건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우선 사건은 시간적 존재자이다. 그러면서 그의 사건은 앞에서 본 대로 반복 없는 1회적인 존재자이다. 그리고 보편자로서의 속성 없는 개별자이다.

10) 김재권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제거주의와 별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미있는 제거주의는 실재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명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무법칙적 일원론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제거주의는 물리 속성은 인정하면서 정신 속성만을 부정하는 입장인데 반해, 데이비슨의 유명론은 속성 자체를(물리 속성의 경우조차도) 존재론적으로 중시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거주의와 데이비슨의 차이에 관한 나의 논의는 줄고(1995B) 참조.

11) 이런 점에서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도 범하지 않으며 물리주의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 글의 5장 참조.

12) 심신 유명론과 4차원개별자론에 대해서 필자는 예전의 논문인 줄고(2001), 줄고(2005)를 통해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에서의 심신 유명론과 4차원개별자론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이하의 내용은 예전 글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과 보다 개선한 내용이 들어 있다. 줄고(2009) 말미에도 4차원개별자론을 논하였지만 이 글에서 논하는 내용과는 다른 측면으로 보완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보편자로서의 속성이 없다는 뜻은 모든 사건이 각각 상이하다는, 즉 어떠한 동일함도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건 개념을 시공간적 위치를 갖는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길이, 크기, 부피 등 연장(extension)이 없는 점이라야 수량화를 벗어나서 질적인 차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에서 보듯이 크기가 있다면 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단위를 가지므로 보편자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화될 수 없다는 것에서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단순체라는 점도 귀결된다. 공간적으로만 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점이기에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무상한 존재자이다.¹³⁾

심신 유명론을 구성하려는 사건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각각 상이한 독특함을 지녀 어떠한 동일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것이 전혀 동일함이나 유사함을 인식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인식 차원에서는 언어차원의 서술을 통해 인식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술어에 의한 동일성 인식은 가능하다. 다만 언어차원이나 만큼 인식 주관의 관점이나 배경 이론, 개념구도(conceptual scheme)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에서 심신 유명론의 바탕이 되는 데이비슨식의 개별자 사건은 4차원개별자라고 볼 수 있다.¹⁴⁾

-
- 13) 보통 ‘무상(無常)’이란 말이 의미하는 초점은 지속되지 않고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불교에서 그런 의미로 쓰이며 ‘헛되다’는 가치 표현과 관련시켜 함께 쓰이곤 한다. (기독교도 구약 전도서 서두의 사례가 있다.) 4차원개별자론에서의 ‘무상’의 의미는 시간 차원의 단순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헛되다’는 가치는 4차원개별자론의 관심이 아니다. ‘사라지다’라는 현상도 4차원개별자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라진다는 측면보다 각 순간에 서로 다른 시간적 개별자가 각기 존재한다는 측면에 더 초점을 둔다.
- 14) 속성을 부정하는 격인 유명론은 속성에 관해 특히 물리 속성과 정신 속성 간의 구별에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직관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직관은 속성 실재론을 전제로 당연히 여기는 직관일 뿐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다. 속성 실재론의 이러한 직관은 그러한 속성이 배경 이론이나 관점 등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것임을 전제할 때에 확고할 수 있다. 전자의 ‘직관’에 비해 후자의 ‘전제’는 상식적이라고 당연 시하기에는 다소 강한 주장이 아닐까?

4차원개별자는 라이프니츠의 단자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라이프니츠의 단자는 점과 같이 연장없는 개별자이긴 해도 시간 차원까지 개별자인 것은 아니라서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는 통시간적이며 연속적인 지속성과 동일성을 지닌 개별자이다.¹⁵⁾ 라이프니츠가 단자를 연장없는 점과 같은 존재로 본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단순체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즉 원자 역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물질적 단순체로 이해되지만 물질이기 때문에 연장을 가진 존재자이므로 나누어질 여지가 있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단자는 비연장적인 점과 같은 존재자이다.¹⁶⁾ 하지만 단자는 시간 차원에서는 통시간적 동일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그의 주장과는 달리 시간 차원의 연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결코 단순체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4차원개별자는 시간적 존재자인 개별자 사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듯이 시간 차원에서도 점과 같은 개별자로 순간적인 찰나적인 존재자이므로 3차원 공간뿐만 아니라 4차원 시간 측면에서도 단순체이다.¹⁷⁾

이러한 4차원개별자론은 심신 유명론으로 발전하여 심신 문제 특히 정신 인과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의 세계관과

-
- 15) 나는 4차원개별자론을 처음 제시한 줄고(2005)에서는 원래 4차원개별자와 비교하면서 라이프니츠의 단자를 ‘3차원개별자’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단자는 4차원개별자와 같은 시간적인 개별자가 아니라는 점은 맞지만 비연장적이고 비공간적인 존재자라는 점에서 ‘3차원개별자’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석재가 이 점을 지적해 주었다.) 하지만 줄고(2005)에서 라이프니츠의 단자를 언급한 것이 그의 단자론을 해석하려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었고 그러한 해석의 수정은 원래의 글에서 4차원개별자론을 옹호하는 애초의 논변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16) 그래서 물질 실체의 기본 속성이 연장이라는 데카르트의 물질관을 라이프니츠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자는 물질이 아닌 정신적 존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17) 왜 유명론을 위해서 이런 식의 궁극적인 단순체를 요구하는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동일성과 수량화가 개입하여 보편자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유명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유명론을 유지해야 하는가? 보편자 실재론을 옹호할 경우 정신 인과의 문제에 관해서는 계거주의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며 대략적인 생각은 줄고(1995C)를 참조할 수 있으며, 조만간 이러한 생각과 함께 심신 문제에 관한 나의 생각을 다듬고 종합해서 『심신 문제 : 인과와 자연의 형이상학』(가제)이라는 저술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시간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근대 과학인 고전 물리학에서도 시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고전 물리학에서의 시간은 시간의 일방향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대칭적인 시간 개념 뿐이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고전 물리학에서의 시간은 공간의 속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공간에서의 다른 물리 속성들과 같이 수량적으로만 취급됐기 때문에 가역적인 대칭성을 띠 뿐이었다. 그런데 시간의 독특한 특성은 과거-현재-미래의 일방향성, 즉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시간의 흐름이다. 이러한 시간의 특성은 흔히 비유적으로 ‘시간의 화살’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고전 물리학이 지배했던 근대에 비해 현대는 시간이 보다 중시된다. 우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 일반상대성이론에서는 근대의 고전 물리학보다 시간이 더욱 중시됐고 이후 시공간(spacetime)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대 형이상학은 데이비슨과 같이 사건을 기본 존재자로 두는 경향이 생겼다. 근대까지의 서양 형이상학은 공간적 존재자인 실체(substance)나 사물(thing) 등을 기본 존재자로 삼곤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존재자들은 인식의 측면에서는 대상(또는 객체 object)이 된다. 이에 반해 사건은 시간적 존재자이며 시간과 공간의 관점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존재자이다. 또한 엔트로피 법칙, 즉 열역학 제 2법칙은 시간의 일방향성, 소위 ‘시간의 화살’을 잘 보여주어서 근대 물리학과는 달리 시간의 일방향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¹⁸⁾ 4차원개별자론은 순간순간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개별자이므로 이러한 시간의 일방향성 등 중요한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다.

4차원개별자론이 예전의 다른 형이상학 입장 그리고 고전 과학의 세계관과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특성은 4차원개별자론은 시공간의 유한성을 옹호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고전 물리학이나 기존의 많은 형이상학 입장은 시공간의 무한을 지향하였다. 기존의 형이상학 이론들이나 고전 물리

18) 이 문단과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 새로운 시간관에 관해선 제레미 리프킨(1992) 참조

학은 수학적 · 연역적 사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한 사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대부분의 형이상학은 실체, 동일성, 본질 등 통시간적인 영원성, 영속성과 어울리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입장들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모두 존재차원에 속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4차원개별자론은 데이비슨의 사건 이론을 유명론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확장, 발전시킨 것이니 만큼, 데이비슨이 “법칙은 언어적”이라고¹⁹⁾ 한 것과 같이 수학적 · 연역적 필연성의 성격이 들어있는 자연법칙은 존재차원의 사건이나 4차원개별자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언어차원의 서술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서양 형이상학의 중심 개념이었던 필연성이 존재차원이 아닌 언어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4차원개별자론의 ‘필연성’은²⁰⁾ 고전 물리학이나 기존 형이상학처럼 무한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없이 시공간의 유한성에 적절하며, 이러한 점 또한 현대 과학의 세계관과 잘 어울리는 특징이다. 실제로 현대 과학에서는 빅뱅 이론과 엔트로피 법칙 등이 정설화되면서 시공간의 시작과 끝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술어화불가능성

그런 의미에서 4차원개별자는 기존 형이상학의 개별자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서양 전통 형이상학에서 개별자의 존재론적 특성으로 언급되는 것들 중 하나가 술어화불가능성(impredicability)이다.²¹⁾ 기존 형이상학에서 개별자들이 술어화불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은 보편자와는 달리 속성을 갖지 않으므로 술어화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또한 개별자가 단순

19) Davidson(1970), 215쪽.

20) 4차원개별자론의 인과와 필연성에 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논함.

21) 술어화불가능성과 함께 불가분할성(indivisibility), 구별(distinction), 구분(division), 동일성(identity) 등이 전통적으로 개별자들의 존재론적 특성으로 거론되는 것들이다. (박우석(1992), 100쪽 이하, 그리고 Gracia, Jorge, J. E.(ed)(1994)[조지 라시아(류음)(2003)]의 26쪽 이하도 참조.)

체로서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존재자라는 점도 관여한다. 술어화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에서는 대체로 속성을 지닌다는 뜻이므로 더 이상 단순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 형이상학의 술어화불가능성은 실체-속성이라는 서양 형이상학의 전통적인 두 범주의 구별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4차원개별자론 등 개별자만 존재한다는 유명론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별을 재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명론의 입장들도 실체-속성의 구별을 당연시하면서 개별자의 술어화불가능성을 옹호하는데, 조금 더 반성하고 검토해야 한다.

기존 형이상학에서 보편자 유명론이란 보편자는 이름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존재를 부정하고 개별자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개별자가 실체로서의 개별자이면 구체적 유명론, 속성으로서의 개별자라면 추상적 유명론(또는 추상적 개별자론 trope theory)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유명론의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는 분류방식은 기존 유명론도 보편자 실재론과 마찬가지로 모두 전통 범주인 실체-속성을 바탕으로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 범주인 실체와 속성은 그 동일성과 존재조건이 다르고 전혀 별개일 수 있다. 특히 보편자로서의 속성은 개별자와 전혀 다른 존재방식을 갖는다. 예컨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다섯 개의 물질이 있을 때, 그 경우의 특정한 모양과 크기라는 보편자로서의 속성은 다섯 개의 개별자에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별개의 다섯 개별자가 공통적인 특정한 모양과 크기를 공유하게 하는 존재론적 근거가 바로 보편자로서의 속성으로, 상이한 별개의 개별자가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갖게 하는 존재론적 근거가 된다. 즉 보편자로서의 속성은 여러 다수의 별개의 개별자에 하나의 속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²²⁾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속성의 동일성과 존재조건은 개별자와의 그것과는 상이할 수 있었다. 특히 개별자와 보편자라는 두 범주의 실재를 모두 옹호하는 입장의 경우에는²³⁾ 이러한 보편자로

22) 즉 개별자는 보편자를 나누어 가진(分有, methexis, participation)다.

23) 이 입장의 원조는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최근의 사례로는 데이비드 암스트롱(David

서의 속성과 개별자의 동일성과 존재, 구별의 조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또한 간혹 개별자 없는 보편자로서의 속성들만의 실재론을 옹호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는 보통 개별자를 속성들의 다발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엄밀하게는 보편자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일상에 보이는 개별자는 보편자들의 다발로 이루어진 2차 존재자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개별자들만의 실재를 옹호하는 유명론에서는, 특히 시간적 개별자를 옹호하는 4차원개별자에서는 실체-속성의 전통적인 구별이 무의미하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보편자 실재론의 경우에는 개체와 보편자로서의 속성의 존재방식과 동일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범주 모두를 각각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보편자 실재론을 부정하여 개별자들 간에 어떠한 동일함도 인정하지 않는 유명론의 경우 결과적으로 실체-속성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단순체로서의 개별자를 실제로 보는지 속성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무슨 중요함을 가질까?

실체와 속성, 그리고 그것의 원조가 되는 고대 형이상학의 질료와 형상에서 속성과 형상의 담지자(bearer)는 각각 실체와 질료였다. 다만 조금 전에 보았듯이 보편자 실재론의 경우에는 보편자로서의 속성이 여러 다수의 (실체 차원의) 개별자에 존재하는 것이며, 보편자만의 실재를 옹호할 경우는 실체란 보편자들의 다발로 이루어진 2차 존재자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유명론과 같이 개별자들의 존재만 인정하는 경우, 그 경우의 개별자를 실체로서의 개별자(속성 없는 개별자 bare particular)로 보든 속성 차원의 개별자(즉 추상적 개별자 trope, abstract particular)로 보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4차원개별자도 ‘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두 4차원개별자도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른 각각의 독특함을 갖는 개별자라는 점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속성으로서의 개별자인 추상적 개별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느 두 단자도 서로 동일함이 없다고 하는 라이프니츠의 단자도 앞에서 보았듯이 시간적 개별자

M. Armstrong)이 있다.

가 아니라는 점 이외에는 4차원개별자와 유사하다.²⁴⁾ 하지만 이러한 4차원개별자가 갖는 독특한 ‘속성’은 보편자 실재론의 경우처럼 존재 방식과 동일성 조건을 개체와 달리하는 그런 속성이 아니다. 4차원개별자론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자에 독특한 각각의 ‘속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4차원개별자론의 경우에는 속성과 개별자의 존재조건과 동일성조건이 결코 다르지 않다. 속성과 개별자의 존재조건과 동일성조건이 각각 둘이 아니라 이미 하나이다. 이렇게 한 가지의 동일성 조건과 존재조건, 구별 조건을 갖는 개별자를 속성 차원으로 보든 실체 차원으로 보든 무슨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사소한 말싸움(verbal question)에 불과하다.²⁵⁾

개별자만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명론의 경우 그 개별자를 전통 유명론처럼 실체-속성 범주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두 범주는 개념상, 명목상으로도 구별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어느 한 쪽으로든 환원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유명론에서 구체적 유명론과 추상적 유명론의 구별은 실체-속성의 두 범주의 구별을 인정하고 그 두 범주 중 어느 하나만 개별자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유명론으로서 그 두 범주 중 결국 하나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라면 애초의 두 범주의 구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범주 중 하나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다른 하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 두 범주를 나누었던 분류기준 자체를 재고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일상 상황에서도 여러 다수의 개체들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와, 둘 뿐인데 하나가 없어지고 다른 하나만 남는 경우는 그 무게, 함축,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는 하나는 단위(unit)가 될 수 있으니 그 단위를 기본으로 놓고 전체 구성을 원초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추상적 유명론에서의 속성 개별자도 실체 개별자와 차별

24) 이런 점에서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을 현대의 추상적 유명론의 중요한 원조로 볼 수 있다.

25) 김희정(2001)은 추상적 유명론(trope theory)에서 개별 실체와 개별 속성(그 논문에서는 ‘사물’, ‘성질’이라 함) 간의 의존에 따른 우선성 여부에 관한 논쟁에 관해 논하였다. (특히 242쪽 이하)

화될만한 그 이상의 의미있는 범주가 아니다.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것을 굳이 ‘추상적 개별자’(또는 ‘구체적 개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애초의 두 범주에서 속성의 요소만을 온전히 가질 뿐 실체의 요소는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의미있는 이유가 없다. 사실 전통적인 서양 형이상학에서 실체-속성의 범주는 유럽언어의 주어-술어 구조에 대한 상응(correspondence)과 의미의 지시체(reference)라는 상식적 실재론의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형이상학적 실재론이나 언어와 세계와의 동형성(isomorphism)을 강한 의미로 주장하지 않는 한, 당연하게 절대시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재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4차원개별자론을 제창하면서 주장하는 술어화불가능성은 기존 유명론의 술어화불가능성과는 다르다.²⁶⁾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4차원개별자도 각 개별자마다 어느 다른 개별자들과도 다른 각각의 독특함과 고유함을 가지며 이것을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술어화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개별자마다 갖는 독특함 때문이며, 그러한 독특함은 술어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술어 등 일반 언사는 모종의 일반화·유형화를 전제로 했을 때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느 두 개별자도 서로 동일하지 않은 고유함과 독특함은 (설사 그것을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고유명사에 의해서만 명명될 수 있을 뿐이지, 술어 등 일반 언사로 는 그 독특함이 있는 그대로 포착되지 않는다.²⁷⁾ 다만 인간은 술어화를 통해 인식할 수 있을 뿐이어서 데이비슨의 사건 서술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러한 술어화의 경우는 서술 주체의 관점에 따라²⁸⁾ 유일한 한 가지 참

26) 물론 나는 이하에서 제시하는 나의 ‘술어화불가능성’ 개념이 4차원개별자론이 아닌 기존의 개별자론(예컨대 특별히 시간적 개별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3차원개별자 또는 라이프니츠식의 단자 등)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술어화불가능성은 실체-속성의 구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7) 존재를 무상하고 찰나적인 것으로 보는 불교, 특히 선불교의 “不立文字”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닐까?

28) 과학철학에서 관찰의 이론의존성과 관련한 선택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줄고(2000B), 239-40쪽 참조.

인 방식이 아닌 여러 상이하고 다양한 술어화 서술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서술 주체의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자 자체는 결코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술어화될 수 없다.²⁹⁾

4. 인과와 필연성

4차원개별자론은 심신 문제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4차원개별자론은 유명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체-속성은 명목상의 범주일 뿐이다. 따라서 심신 문제에서의 정신적(또는 심리적), 물리적인 것은 개념상의 구별일 뿐이지 존재차원의 구별이 아니다. 4차원개별자론에서 귀결하는 이러한 심신 이론이 심신 유명론이다. 이제 심신 문제에 대한 심신 유명론의 입장을 구성해 보겠다.

가장 기본적인 존재자는 데이비슨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개별자 사건이다. 이것은 4차원개별자로서 시공간 좌표 상에서 자기 위치를 갖고 있지만 점과 같은 개별자로 시간상의 지속이나 반복이 없는 1회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은 어떤 다른 사건과도 동일함을 공유하지 않으며 각각 독특함을 지녀서 앞 장에서 보았듯이 그 자체로는 술어화불가능하다. 사건이 존재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존재자라면, 사건은 그것의 언어차원인 서술과 구별된다. 그리고 서술 주체의 관점에 따라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다. 즉 각 사건의 독특함은 주체의 관점과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서술될 수는 없으며, 서술될 경우에는 주체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사건을 서술하는 우리의 언어는 개별자 사건의 독특함을 있는 그대로 서술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모종의 유형화 · 일반화를 통해 서술이 이루어진다.

데이비슨의 경우에는 동일성과 인과성은 모두 존재차원인 사건들 간의 관계이고, 법칙과 설명은 언어차원의 것이었다. 4차원개별자론을 바탕으로

29) ‘술어화불가능성’에 관한 이상의 내용은 줄고(2005)에서도 다룬 바 있으며 그 때의 내용을 데이비슨의 사건 존재론과 관련지어 상당 부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로 한 심신 유명론에서도 법칙과 설명은 마찬가지로 언어차원의 것이고 서술 주체의 관점과 배경 이론을 토대로 성립한다. 하지만 동일성과 인과성의 경우에는 데이비슨의 경우와 미묘한 차별화를 제시하려고 한다.³⁰⁾ 4차원개별자로서의 사건은 순간순간의 찰나적인 개별자이므로, 사건 동일성은 각 사건 간의 자기 동일성 뿐이다. 그것도 통시간적인 지속성있는 자기 동일성이 아닌 순간순간의 개별자 각각이 갖는 자기 동일성에 불과하다.

4차원개별자로서의 사건은 서술 주체의 관점과 배경 이론을 통해 서술되기 이전에는 사건들 간에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는 독립적인 개별자이다. 이러한 개별자들의 세계에서 인과란 사건들의 존재에 부가하여 따로 덧붙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건들의 독특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 단자론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단자론에서는 인과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자들의 내적 본성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³¹⁾ 마찬가지로 심신 유명론에서도 4차원개별자로서의 사건들 이외에 인과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특함을 지닌 4차원개별자들만 존재할 뿐이며 그것이 언어차원의 서술을 통해 배경 이론의 인과 법칙에 의해 자리매김 되어서 인과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단자론과는 많이 다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라이프니츠의 단자는 4차원개별자와는 달리 시간 속에서 변화하지 않고 영속하는 통시간적인 지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의 세계관은 운동 내지 변화를 부정하는 정적인 것이다. 반면에 심신 유명론은 시간적으로도 개별자인 4차원개별자들로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개별 사건들의 존재 이외에 따로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해

30) 데이비슨의 경우 사건 동일성은 다르게 서술된 사건들 간의 동일성으로, 서로 다른 사건 서술들 중 어떤 것들을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술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데이비슨은 “사건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원인들과 결과들을 갖는다면, 그리고 그 때에만 그 사건들은 동일하다”고 말하였다. (Davidson(1969), 179쪽)

31) 잘 알려져 있듯이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이다.

보여도 시간적인 지속성을 지닌 개별자가 아니다.³²⁾ 그래서 마치 수학에서 미분을 통해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듯이 시공간적인 4차원개별자는 라이프니츠의 단자에 비해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이 점은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을 비롯한 전통 형이상학 이론들과는 달리 4차원개별자론이 실체-속성 범주 중심의 존재론이 아니라는 점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서양 전통 형이상학의 중요한 토대였던 동일성(혹은 정체성 identity)이 바로 실체-속성 범주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 형이상학은 운동과 변화를 설명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4차원개별자론은 유명론이므로 이러한 개별자들로만 구성된 세계에는 각 개별자 자신의 자기 동일성 이외에 어떠한 동일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편자로서의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보편자로서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4차원개별자론에서는 언어차원의 술어에 의한 서술에 불과하다. 즉 보편자로서의 속성에 의한 존재론적인 동일함은 전혀 없지만, 우리의 인식에 의해 개별자들 간의 상이함과 독특함을 추상화하여 술어화 · 개념화 · 유형화하면서 유사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성과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 때의 ‘동일성’과 ‘유사성’은 인간 주관에 상관없이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정신에 의해, 술어화에 의한 서술에 의해 어느 정도 구성되는 것이다. 인간 정신 내지 주관에 독립하여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아무 동일성도 갖지 않은 4차원개별자들뿐이다. 그리고 이 개별자들은 아직 언어에 의해 서술되기 이전의 존재자들이라는 점에서도 인간의 정신 · 인식 · 언어 · 이론 등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자연법칙 등 인과법칙은 인과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32) 따라서 인과가 사건들 이외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들의 존재에 흠식으로 수반(Humean supervenience)하는 인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존재차원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4차원개별자론에서의 인과는 언어차원에서 언어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비인과적인 다른 모형으로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인과 모형이 지금까지의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널리 쓰이고 있는 모형이기에 채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있어서 인과법칙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고 근거지우기 위해서는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이 필요하다. 데이비드 암스트롱의 보편자 실재론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유명한인 4차원개별자론에서는 인과법칙, 인과적 설명도 보편자로서의 속성의 경우와 같이, 술어에 의한 서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존재론적으로는 인과의 어떠한 반복도 법칙성도 없다. 다만 인과법칙은 어떤 배경 이론 하에서 적절한 술어에 의한 서술을 통해 구성된다. 그런 점에서 “법칙은 언어적”이라는 데이비슨의 생각과 마찬가지로이다.

데이비슨의 경우는 법칙은 언어적이라고 하면서 개별 인과(singular causation)의 존재는 별 설명없이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 같다.³³⁾ 하지만 4차원개별자론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 4차원개별자론에서는 존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독특한 4차원개별자들 뿐이다. 개별자들 이외에 개별 인과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과성 자체가 언어적인 인과법칙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적인 인과법칙은 배경 이론 체계 안에서 구성된다. 4차원개별자론에서는 개별자 사건들에 관한 서술, ‘속성’에 해당하는 술어, 그리고 인과법칙은 모두 언어차원의 것으로 설명의 요소, 특히 인과적 설명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언어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존재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기 보다 인식 주체의 관점에 다소 의존한다. 그리고 어떤 배경이론 체계의 토대 위에서 구성된다. 이 경우의 이론 체계 역시 존재 세계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어느 정도 구성한 모형이다.

또한 4차원개별자들은 그 자체로는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는 독립적인 개별자들이다. 인과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배경 이론을 가지고 술어화하여 서술하느냐에 달려 있다. 심지어는 4차원개별자가 시공간 상의 점이라고 했지만 시공간 상의 위치와

33) 사실 예전 논문인 줄고(2001)에서 제시한 심신 유명론의 인과는 데이비슨과 같은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이번에 이 장을 통해 개선하고 보다 명확하게 발전시켰다.

관련된 ‘속성’조차도 어떠한 시공 좌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술어화되고 서술될 수 있다. 즉 존재차원에서는 그 자체로 비관계적인 개별자들 뿐이며 관계는 언어차원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차원의 술어는 배경이론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배경이론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4차원개별자론에서는 모든 술어는 관계적(relational) 또는 외재적(extrinsic)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배경이론을 토대로 성립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체론적(holistic)이다.

단순체이면서 비관계적이라는 점에서 4차원개별자는 라이프니츠의 단자처럼 “창이 없는” 개별자로 볼 수도 있다. 단자론에서 “창이 없다”는 의미는 라이프니츠의 경우 한 실체가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냄으로써 타자로부터 오는 영향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이다. 즉 실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든 실체 외부의 타자와는 무관한 순전히 실체 내부의 일로 취급된다. 이런 점은 4차원개별자도 공유한다. 오히려 4차원개별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간 차원에서도 단순체로서 단자보다도 더 궁극적인 단순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 동안 형이상학이나 과학철학 분야에서 자연법칙 등 인과법칙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연성 등 양상 개념에 호소하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법칙의 필연성을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근거지우는가 하는 뜨거운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흄식의 경험론을 토대로 삼아 필연성 자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규칙성 이론, 그리고 필연성의 실재함을 인정하는 필연성 이론의 두 입장을 큰 틀로 하여 중요한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쟁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인과법칙에는 모종의 ‘필연성’과 같은 양상의 힘(modal force)이 있으며 이러한 필연성이 자연에 내재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필연성은 흄이 의심했듯이 경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규칙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논리적 필연성과도 다르다. 이러한 모종의 필연성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 4차원개별자론은 인과의 필연성이나 자연의 필연성의 실재함을 옹호하지 않는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유명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필연성의 존재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보편자 실재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서도 보았듯이 인과, 그리고 인과적 설명이나 인과법칙을 언어적인 것으로 보는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인과법칙의 필연성을 존재차원이 아닌 언어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있다. 이 경우의 ‘필연성’은 형이상학적인 필연성이 아니며, 이론 내부의 정합성과 일관성, 그리고 언어적인 인과법칙과 그것의 토대를 이루는 배경이론 체계, 그리고 인과법칙과 그 구체적인 사례의 서술을 구하는 경우의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관계에서 보여지는 인식 차원의 연역적·논리적 필연성이다. 즉 예컨대 ‘인과법칙의 필연성’을 험펠(Carl G. Hempel)식의 인과법칙에 의한 설명 모형(포괄법칙모형, covering law model)에서 보여지는 연역적 필연성과 같은 종류로 환원시켜 이해할 수 있다.³⁴⁾

인과법칙이 갖는 모종의 필연성을 해명하는 문제가 지금까지도 쟁점이 되는 이유는 전통 형이상학의 틀에서 논리적 필연성보다는 약하면서도 모종의 양상의 힘을 지니는 듯한 ‘인과적 필연성’을 철학적으로 해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4차원개별자론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앞에서 보았던 연역논리의 무한지향성과 자연의 유한성 간의 괴리를 통해 이해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논리적 필연성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함에 반해, 인과법칙의 필연성으로 보여지는 자연의 필연성에 관해서는 결코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다. 전통 형이상학 중 합리론 계열의 형이상학에서는 간혹 이러한 논리적 필연성을 존재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보곤 해서 형이상학으로 하여금 공허한 사변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받게 하기도 했다.³⁵⁾³⁶⁾ 4차원개별자론에서는 필연성과 가

34) 험펠의 포괄법칙모형(covering-law model)에서 볼 수 있는 법칙과 개별 사례들 간의 연역적 관계, 그리고 그런 법칙들과 기본 공리, 정리들의 연연으로 이루어진 연역적 이론 체계를 생각하면 된다.

35) 칸트의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론이 바로 이러한 지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36)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철학, 특히 형이상학에서 유용한 방법론의 한 가지로 쓰

능성 같은 양상의 힘은 특정한 배경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 내부적으로 언어차원에서 성립하는 것이다.³⁷⁾

5. 과학의 다양성과 물리주의

서두에서 본 정신 인과 문제의 경우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을 옹호하는 속성 2원론은 정신 인과의 두 원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차원개별자론을 토대로 하는 심신 유명론은 정신 속성과 물리 속성이라는 ‘속성’이 개념적 범주이고 술어에 의한 서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속성 2원론이 갖는 형이상학적 부담을 갖지 않는다. 이미 보았듯이 개별자는 다양하게 술어화될 수 있다. 서술 주체의 관점이나 배경이론에 따라 다르게 술어화되고 서술될 수 있다. 흔히 여러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는 아래와 같은 ‘존재계층’은 4차원개별자의 세계가 각각 다르게 술어화된 것이다.

- ① 미시 물리적 존재자
- ② 일상 사물(거시 물리적 존재자)
- ③ 생명체
- ④ 개인으로서의 인간(정신, 이성)
- ⑤ 사회

이는 사유실험의 방법은 제한적으로 쓰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술어화는 항상 일정한 배경이론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경우 그 이론 내부에서 쓰이는 술어 등 개념들은 서로 밀접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독립되는 것처럼 특정한 측면을 따로 떼어 가정하는 사유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조금 전에 모든 술어는 관계적 혹은 외재적이며 전체론적으로 성립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 37) 이상욱(2004)은 토머스 쿤 식의 패러다임을 가능세계로 이해하고 있다. 가능세계를 인식 내지 언어차원의 이론내부의 것으로 이해하는 4차원개별자론의 시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각각의 ‘존재계층’은 사실상 ‘언어계층’, ‘술어계층’이 되며, 언어차원의 서술이 배경이론을 전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 ‘존재계층’은 술어화의 토대가 되는 이론 계층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층들에 따라 다양한 과학과 학문 분야의 계층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계층들은 서로 다른 배경이론과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술어화된 계층들이므로 다른 계층 영역으로 환원하려는 것은 데이비슨의 표현대로 “주체를 바꾸는(change the subject)³⁸⁾” 부적절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환원되지 않고 각각 자율성을 띤 영역이다.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4차원개별자들의 세계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개별자론에서는 과학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속성 2원론 등 비환원주의가 갖는 정신 인과 문제의 어려움은 가지지 않는다. 동일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상이한 서술들이 가능한 것처럼 각 이론 계층에서는 그 이론 계층에 고유한 법칙을 통해 각각 나름의 인과적 설명이 있을 수 있다. 각 이론 계층의 인과적 설명 상호 간에는 환원이 성립하지 않지만³⁹⁾ 언어와 서술 차원의 법칙과 설명이지 자연의 필연성과 같은 존재차원에 내재된 인과성과 필연성이 아니므로 부수현상론 시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개별자론이 과연 물리주의일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즉 보편자로서의 속성을 부정함으로써 정신 속성 뿐 아니라 물리 속성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부수현상론이나 제거주의는 정신 속성만 부정하는 데에 반해 심신 유명론은 물리 속성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니 물리주의까지도 부정되는 것이 아닐까?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은 데이비슨의 무법칙적 1원론에도 해당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데이비슨은 “정신적인 것은 존재론적 범주가 아닌 개념적 범주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도

38) Davidson(1970) 216쪽.

39) 여기서의 ‘환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면적인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각 계층들의 일부 요소들 간에 환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과연 개념적 범주 이상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데이비슨 자신은 무법칙적 1원론의 초기 논문인 “정신 사건들”에서 “모든 사건은 물리적”이라고 주장하여⁴⁰⁾ 물리주의 입장임을 분명히 표명하지만 이러한 표명 이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김재권 등의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면서 인과적 힘을 가진 것은 사건들이지 그 사건들을 어떻게 서술하느냐 하는 우리의 다양한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심리 용어 등 거시 용어로 서술된 심리 사건(또는 거시 사건)이 인과적 효력을 갖기에 적절치 못하다면 물리 용어로 서술될 수 있는 물리 사건들도 인과적 효력에 적절치 못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⁴¹⁾ 이런 점에서 물리주의까지도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데이비슨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비슨은 “모든 사건은 물리적”이라는 말 이외에 더 이상의 설명을 안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별로 의식하고 있지 않다.

4차원개별자론과 심신 유명론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방향으로 답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주의가 아니라는 그러한 의심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로 다르고 어떠한 공통성도 없이 각각의 독특함만 지니는 4차원개별자들만 존재함 이상의 어떤 다른 주장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점을 인정하면 여기에 ‘물리주의’, ‘1원론’의 규정을 가하는 것은 술어에 의한 서술 이후의 언어차원의 일이다. 4차원개별자로 이루어진 세계는 특정한 인식 관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자체로는 술어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무규정적인, 하지만 향후 언어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 세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4차원개별자론은 최소 존재론, 최소 실재론이며 형이상학의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으로 볼 수도 있다.

두 번째 선택지는 4차원개별자론에서도 필요하다면 물리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경우의 물리주의는 언어차원의 물리주의로,

40) Davidson(1970), 214쪽.

41) Davidson(1993), 12쪽.

<물리 언어의 전 세계에 대한 포괄적 적용 가능성>이라는 언어적 전제를 언어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물리주의이다.⁴²⁾ 물리주의는 현재 심리철학계의 일반적인 주류 입장이다. 자연과학계의 일반적인 상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물리주의 진영 내부에서 강한 입장과 온건한 입장의 차이는 있다. 심신 이론들 중 제거주의와 환원주의는 강한 물리주의 입장이고 비환원적 물리주의 혹은 속성 2원론의 입장은 온건하고 약한 물리주의 입장이다.⁴³⁾ 4차원개별자론은 이러한 ‘물리주의’라는 상식이 현재 학계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보여주며 4차원개별자론이라는 최소 실재론에 물리주의의 패러다임을 언어차원에서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현재 추가된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현재의 분위기가 그런 것이니 만큼 물리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존재 세계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언어를 물리언어가 아닌 생명 현상을 서술하는 언어로 대체하여, 이른바 생태주의 혹은 유기체론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우든 4차원개별자론의 바탕 위에서 옹호할 수 있는 물리주의나 유기체론은 ‘세계관’으로 옹호되고 있지만 사실상 언어차원의 언어적 전제에 의한 패러다임일 뿐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개별자론은 유명론의 입장을 심신 문제에만 적용시키는 것을 넘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대안

42) 이러한 물리주의를 옹호한 사례로는 Carnap(1955)이 있다. 나는 졸고(1997)에서 데이비슨도 이런 식의 언어차원의 물리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43) 2장(주 10 참조)에서 데이비슨의 유명론이 물리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물리주의’는 최소한 이러한 언어적 물리주의는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의 경우도 그런 뜻에서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소한 비환원적 1원론으로 보면서 인과적 폐쇄성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형이상학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4차원개별자론은 기존의 문제에 대해서 별 설명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어떤 이는 4차원개별자의 무규정성과 술어화불가능성에 의한 설명력 없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의 존재의미를 무화(無化)하고 이러한 방법론상의, 결론상의 제약을 이유로 해서 4차원개별자론의 논의, 더 나아가서 형이상학의 논의 자체를 폄하할 수도 있겠다. 즉 관념론이나 반실재론의 경우처럼 인식론을 넘는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이 무의미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의 논의는 세계를 포괄적으로 보는 이론을 구성·완결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초기 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이상학은 탐구의 초기 작업으로서도 필요하고, 또 철학이나 과학 탐구 성과들에 관한 일관적인 해석과 이해를 위한 마무리 작업으로서도 형이상학은 필요하다. 양자 역학에 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과학의 논의조차도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조화되면서 일관성을 갖춘 해석을 제시하는 데에 아직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 과학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재해석하는 형이상학의 사변적 작업은 과학적 세계관의 구성에 중요한 기여가 된다고 생각한다. 4차원개별자론이 비록 최소 존재론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형이상학이 될 수 있다.

또한 4차원개별자론은 상대주의나 무정부주의, 또는 관념론, 반실재론과 다른 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종래의 상대주의나 무정부주의, 관념론 등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론을 비록 최소한의 형태라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고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술어화도 안되고 지속성이나 통시간적 동일성도 없는 4차원개별자의 존재론은 설명력이 전혀 없지 않느냐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제와 구도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정도의 최소 존재론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4차원개별자론이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소 존재론으로서의 4차원개별자론은 기존의 전제와 구도를 틀로 삼을 때 가능한 최선의 형이상학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으로

유명론을 받아들인다면 다양한 과학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과학과 설명은 상대주의와 무정부주의, 또는 전면적인 관념론의 그것들과는 다를 수 있다. 종래의 틀로 보면 술어화는 안되지만 최소한의 실재가 상징된 4차원개별자론은 무차별적인 술어화, 이론화에 대해 거짓임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의 한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⁴⁴⁾ 기존의 틀에 익숙한 시각에서는 만족스러운 해결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한 불만족스러움은 어쩌면 기존의 관점을 당연시하는 데에서 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숭실대학교)

44) 이런 유추가 적절할지 모르겠다. 자신의 행위를 명분을 가지고 정당화할 수 있다. 우리는 때로는 실질성없는 명분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도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상대성이나 다원성이 적용된다고 해도 참이거나 옳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참고문헌

- 김희정(2001), 「트롭(trope) 이론의 두 논증에 대한 비판」 (『철학』 68집, 한국철학회)
- 박우석(1992), 개체화 문제: 중세인의 가슴앓이 (박우석, 『중세철학의 유혹』, 철학과현실사, 1997)
- 백도형(1988), 데이빈슨의 행위론 (『哲學論究』 제16집, 서울대 철학과)
- _____(1995A), 환원, 속성, 실재론 (『哲學』 제43집 1995 봄호, 한국철학회)
- _____(1995B), 제거주의와 실재론 (『哲學研究』 제36집 1995 봄호, 철학연구회)
- _____(1995C), 심신 문제와 실재론 (『과학과 철학』 제6집(과학사상연구회 편), 통나무 1995)
- _____(1997),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哲學研究』 제41집, 철학연구회, 1997 가을)
- _____(2000A), 「김재권의 새로운 심신 동일론」 (『철학적 분석』 2호, 한국분석철학회, 2000)
- _____(2000B), 「과학의 시대」에 돌아보는 인문학의 역할 (숭실대학교 논문집(인문과학편) 30호)
- _____(2001), 심신 유명론 (『哲學研究』 제54집, 哲學研究會 2001 가을)
- _____(2005), 4차원 개별자론 (『철학연구』 제68집, 철학연구회, 2005 봄)
- _____(2009), 현상과 실재: 심신 문제에 대한 반성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42집 (2009. 가을), 한국현상학회)
- _____(2012), 데이비슨 무법칙적 일원론 (『마음과 철학』(서양편 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이상욱(2004), 가능세계와 과학철학: 쿤의 견해를 중심으로 (제17회 한국철학자대회 발표문)
- 제레미 리프킨(1992). 『엔트로피』 (김명자, 김건 옮김, 두산동아)
- Carnap, R. (1955) "Logical Foundations of the Unity of Science" pp. in:

- The Philosophy of Science* (edited by R. Boyd, P. Gasper, and J. D. Trout, The MIT Press, 1991)
- Davidson, D.(1969), “The Individuation of Events” rp. in : Davidson(1980)
- _____.(1970), “Mental Events” rp. in : Davidson(1980)
- _____.(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Univ. P.)
- _____.(1987), “Problems in the Explanation of Action” in : *Metaphysics and Morality* (edited by Pettit, Sylvan & Norman, Basil Blackwell 1987)
- _____.(1993), “Thinking Causes” in : Heil & Mele(eds)(1993) *Mental Causation* (Oxford Univ. Pr.)
- Gracia, Jorge, J. E.(ed)(1994) *Individuation in Scholasticism* (SUNY Press)
- [조지 그라시아(역음)(2003), 『스콜라철학에서의 개체화』(이재룡, 이재경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3)]
- Kim, Jaegwon(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MIT)
- Kim, Y. J.(1985) *A Defense of the No Event Theory of Events* (Brown Univ.)

Four-Dimensional Particularism as Psychophysical Nominalism

Paik, Tohyung (Soongsil Univ.)

Nonreductive physicalism has been accepted as a main stream on the mind-body problem for a while. In recent philosophy of mind, however, the problem of mental causation, which is never a new problem, is raised anew as a hot issue, since a serious ontological problem of nonreductive physicalism is brought up. According to it, in nonreductive physicalism as property dualism, the mental are only epiphenomena, because it cannot have any causal power. So the mental have no ontologically meaningful status, but are just dependent on the physical. If this criticism is right, the well-known advantage of nonreductive physicalism should be fictitious, and the discussions on the mind-body problem will come back to the start point. That is our situation.

I think that the problem of mental causation relates deeply with the problem of properties as universals. And my point is that Davidsonian token-event identity theory as a form of psychophysical nominalism can survive and be a promising option for the mind-body problem. In this article, I will propose Four-Dimensional Particularism as psychophysical nominalism applying Davidsonian token-event identity theory and Leibnizian monads.

Key words: psychophysical nominalism, Four-Dimensional Particularism, Donald Davidson, impredicability, mental causation

철학탐구 제32집

백도형 e-mail: paikth@ssu.ac.kr

투 고 일	2012년 10월 14일
심 사 일	2012년 10월 26일
게재확정	2012년 11월 12일